

전남 동부권

순천 현대아동여성병원 '점경사'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이어 의료서비스 국제 인증

순천 현대 아동여성병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최근 '인증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증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환자안전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 의료 서비스 평가기관(JCI) 평가 기준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국제 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인증을 받은 제도로 국제 의료기관 인증획득의 의미도 갖는다. 인증평가는 ▲지속적인 환자안전 및 지표관리, 환자진료 ▲수술 ▲마취 진정관리 ▲약물관리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인적자원 관리 ▲시설 환경안전 및 보안 등 308개 항목의 평가 기준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국제 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인증을 받은 제도로 국제 의료기관 인증획득의 의미도 갖는다.

▲기본 가치체계 ▲환자 진료체계 ▲행정 관리체계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35개 카테고리 총 71개 항목의 업무체계를 확립해 이를 병원 시스템에 적용시켜 오고 있다. 정기현 대표원장은 "전문병원"과 '인증 의료기관' 지정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농업·관광 상생발전"

고흥군-중 동흥시 협약

고흥군은 최근 중국 광서성 동흥시와 우호협력 증진과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 도시는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무역·교육·문화·농업·관광 등 각 부문의 친선교류 협력을 강화해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된다. 동흥시는 오는 11월 9일 동흥시에서 열리는 중·베트남 상품교역박람회에 고흥군 참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병준 군수는 "양 시·군 친선교류가 상호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오래도록 지속되고, 나아가 양국이 공동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 도시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국제 우호도시 관계 실현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u@

순천 정원박람회장에 '우호의 정원' 市-中 영파시 5억원 투입...中 전통정원 조성

내년 4월 열리는 순천시 국제 정원박람회장에 순천시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영파시 정원이 조성된다. 순천시는 "순천시 1억원, 중국 영파시 4억원 등 5억원을 투입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중국 전통정원 정원을 오는 11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와 영파시는 지난 1997년 우호교류를 시작한 이래 상호 공무원 교환근무 등 50여 차례 상호 방문이 이뤄졌으며, 2007년에는 10주년 기념 상징물로 문화예술회관에 사자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조충훈 시장은 순천을 방문한 리우치 영파시장 등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에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우호도시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영파시장 일행 방문을 계기로 인구 590만 도시인 영파시를 비롯해 많은 중국 방문객이 내년 정원박람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여수지역 건설노사 2년연속 무분규

임단협 마무리

여수지역 건설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타결했다.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지부장 주선화)와 (사)여수산단 건설업 협의회(회장 김원규)는 36일간 9차례 교섭 끝에 지난 21일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이날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노조원 4809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단협 잠정 합의사항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3670명(76.3%), 반대 626명(13.1%), 무효 60명(1.2%), 기권 453명(9.4%)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이달중 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협상에서 ▲일 기준 임금 4900원 일괄 정액 인

상(단 여성분회 4000원 인상·조공 4300원 인상)▲현충일 유급 ▲자녀 결혼 1일 유급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개선안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여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보와 타협으로 교섭에 임해 물리적인 단체행동이나 투쟁집회 한 번 없이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이번 여수지역 건설노사 임단협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장구 단일화 절차이행으로 예년 대비 교섭시기가 지연됐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곡성 카누체험장 개장

카누체험장과 캠핑장이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변에 들어섰다. 곡성군 죽곡면은 지난 21일 죽곡면사무소 앞 보성강변에서 카누체험장과 캠핑장 개장행사를 가졌다. 죽곡 카누체험장 및 캠핑장은 개장 기념 연말까지 요금을 20% 할인해 운영한다. 남부 내륙지방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죽곡 카누체험장은 카누 체험과 함께 캠핑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지난 22일 열린 고흥 '선정 머드림픽' 갯벌 줄다리기 참가자들이 힘껏 줄을 당기고 있다. <고흥군 제공>

머드 굴렁쇠 굴리기·머드속 고기잡기...

신나는 갯벌...복적복적 고흥

스포츠 선수·사진작가 등 1만3천여명 성황

'머드림픽' 성료...이색 체험 브랜드 자리매김

지난해부터 고흥군 남양면 선정마을 주민들이 여는 '머드림픽'(갯벌 올림픽)이 이색적인 갯벌체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에 갯벌스포츠 동호인과 관광객 1만30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개최전부터 머드스포츠 경기 참가신청이 폭주해 18일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진행이 전일 21일 낮부터 주말 가족단위 체험객과 전국사진작가들이 갯벌을 메우기 시작했다.

행사 첫날인 21일 전통 날베 만들기 체험,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한 '12 당산굿 별신제', 소원 달 집태우기를 재현,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경기 당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갯벌스포츠 경기 참가 120여개팀 1300여명의 선수와 전국에서 온 사진작가 500여명이 몰렸다.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가시마시 등지에서 온 200여명의 외국인도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머드 굴렁쇠 굴리기, 머드달인 4층 경기 등 8개 종목

과 머드속 고기잡기 등 부대행렬 행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뜨거운 경쟁 속에서도 명랑운동회 성격으로 폭소와 즐거움을 자아내는 갯벌 위의 이색체험 스포츠로 참가 선수와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머드림픽'은 체험종목 추가, 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내실을 다졌다"며 "올해 행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머드림픽'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 선정마을 주민들은 20여년전부터 일본 가시마시 '가다림픽'(일본식 갯벌 올림픽) 행사에 경주대회에 참가한 것이 인연이 돼 지난해부터 정식 축제를 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u@

전북대, 내년 수시모집 2408명

전북대학교는 2013학년도 신입생을 수시모집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54%인 2408명을 선발한다.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학사정관 전형인 수시 1차에서는 전체 모집의 14.7%인 656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에서는 ▲큰사라진형 396명 ▲지역화합인재 40명 등 436명을, 정원 외에서는 ▲농·어촌학생 127명 ▲기회균형선발 93명 등 220명을 뽑는다. 수시 2차에서는 ▲일반학생 1560명 ▲국가공헌자 46명 ▲특기자 48명 ▲특성화고교 출신자 68명 ▲특수교육대상자 20명 등 1752명을 선발한다.

이 밖에도 '농·어촌 전형' 지원자격을 농·어촌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부모와 학생 모두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정했고, '기회균형 선발'에서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원서접수는 ▲수시 1차 8월 17~22일 ▲수시 2차 9월 6~11일이다.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enter.jbnu.ac.kr)와 (주)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 기업들 "올 여름휴가는 3일"

정읍지역 기업들은 올 여름 3일 이하의 휴가를 실시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상공회의소(회장 김원근)는 최근 관할지역(정읍·김제·고창·부안) 13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계휴가계획을 조사한 결과 52%인 78개 업체가 3일 이하로 실시하고, 4~5일로 실시하는 업체도 62개 업체 41%로 나타났다. 휴가비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한

다'가 65개 업체(43%)로 가장 많았으며, 지급수준은 ▲20만원 미만 57개 업체(38%) ▲20만원 이상 19개 업체(13%) ▲30만~50만원 21개 업체(14%)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휴가 기간중 조업유무에 대해서는 46%인 69개 업체가 조업을 중단하며, 23개 업체인 15%는 부분조업, 38%인 57개 업체는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바캉스, 체험 많은 부안으로"

郡, 관광객 유치 캠페인

부안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23일 부안군에 따르면 부안 향우회원들에 이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 등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부안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부안지역의 체험활동과 여름

철 행사 등이 담긴 홍보 전단지과 추천 여행지, 숙박·음식업소 현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홍보지에는 해수욕과 갯벌 체험, 천체 관측, 도자기 체험, 누에 체험, 부안 마실길 걷기 체험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8월 10~13일 부안 해역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안내가 실려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항, 풍력산업 중심에 서다

해상풍력 배후단지 선정...동북아 중심항 성장 기대

물동량 350만R/T 추가 확보...기업유치·고용창출 효과

해상풍력단지 배후항만이 군산항에 유치됨에 따라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건립중)의 중·장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이번 배후항만 유치로 오는 2019년까지 해상 풍력단지 개발을 지원하는 물동량 350만R/T(2011년 군산항 총 물동량 1980만R/T의 17.6%)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조선·해양플랜트 등의 산업과 연관시켜 군산항 활성화를 통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일제 수탈항의 아픈 역사를 가진 군산항이 해상풍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새만금 신항과 함께

'동북아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배후항만 유치는 군산지역의 조선, 풍력, 해양 플랜트 시설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풍력발전기의 생산·조립·운반·설치 작업을 담당할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군산 국가산업단지에는 조선소는 물론 풍력발전기 생산업체, 기계부품, 해양플랜트 시설 공장이 밀집돼 있다. 풍력발전만 하더라도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날개), 타워 생산공장이 모두 들어서 있어 해상풍력 산업의 연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동학 배우러 왔어요"

최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에 나선 고창지역 7개 중·고교 학생들이 공음면 구울리 '무정기포지'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고창군 제공>

단신

군산 서부권 도서관 명칭 '설림'으로

군산 서부권 도서관 명칭이 '설림(雪林) 도서관'으로 확정됐다. 군산시는 지난 5~6월 도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명칭을 공모한 후 평가심의회 심의와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설림'은 도서관 주변의 산이

름으로, 17세기 중엽부터 대동여지도 등에 공식적으로 등장했으며 산기슭에는 천연 고찰인 은적사가 있다. 설림 도서관은 1층 아동, 2층 일반, 3층 남녀 열람실로 조성해 올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남원 살림 노인복지센터에 '복지숲' 조성

남원시는 이백면 척문리에 위치한 살림 노인복지센터에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녹색 복지숲'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해 산림청(녹색사업단) 공모사업 당선으로 지원받은 녹색자금 복원기금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1352㎡ 규모내에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조경수 106 그루를 식재했다. 시 관계자는 "8월 예정인 2013년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시설내 녹색복지 공간을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김제시, 남포 들녘마을서 '농촌문화 캠프'

김제시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성덕면 남포 들녘마을에서 도시와 농촌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농촌문화·교육체험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는 2회(각 2박3일)로 나눠 지역 4개 초등학교 학생과 수도권 3개 초등학교 학생이 각각 50

명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박·고구마 수확, 물고기 잡기, 떡메치기 같은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대나무 물총 만들기, 부채그림 그리기, 꽃수건 만들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으로 꾸며진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부안 '어린이교실 하계 캠프' 성료

부안군 통합체육회는 지난 18~20일 2박3일간 무주 최강래저 캠프장에서 위도초등학교 18명과 백산초등학교 28명 등 총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교실 하계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레프팅과 서바이

벌, 담력훈련, 레크리에이션, 체육경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 통합체육회는 지난 7~8일 1박2일간 '다문화가정 어울림' 하계 캠프를 운영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